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10:00	매 수	7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6장
	담 당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 미주팀 김진오 선임연구원 ☎ 044-414-1085 ✉ jokim@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협력팀장 ☎ 044-414-106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 모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브라질 경제 전망 및 한·브라질 협력 방안 논의
- 한·MERCOSUR 무역협정 타결을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 및 인프라·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홍중)은 10월 21일(수) 한·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외교부와 공동으로 서울 위커힐 호텔에서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최신원 KOBRAS 회장과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 김찬우 주브라질 한국대사, 루이스 로베스(Luís Henrique Sobreira Lopes) 주한 브라질 대사 등 양국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브라질 경제의 환경 변화 및 전망을 논의하고, 인프라·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최신원 KOBRAS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금번 포럼이 한국과 브라질 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 기업이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축인 브라질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충제 KIEP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브라질은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시장친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중남미 유망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과 브라질은 3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경제협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무역부터 지식공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며 양국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김찬우 대사는 축사를 통해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한·MERCOSUR 무역협정(TA)이 타결되면 브라질 시장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간 유망협력분야로 △인프라 △보건의료 △뉴딜정책을 언급하며 브라질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파르시지우 프레이타스(Tarcísio Gomes de Freitas) 브라질 인프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브라질은 △안정적이고 정교한 투자환경 △인프라 부문에서의 탄탄한 투자자산 △성장잠재력을 갖춘 높은 수익률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송, 석유 및 천연가스, 보건위생 분야에서 계획 중인 대규모 입찰 대상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1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브라질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윤여준 KIEP 미주팀장이 사회를 맡고, 홍성우 KIEP 부연구위원이 코로나19가 브라질 내 △소비 감소 △고용률 악화 △재정적자 심화 등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홍성우 부연구위원은 현재 브라질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및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윌송 멜루(Wilson Mello) 브라질 상파울루 투자청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파울루 주(州)와 브라질에 대한 투자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멜

루 청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소비 시장인 상파울루가 현재 산업, 인프라, 관광, 과학, 기술 및 물류 분야에서 광범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 보호 △혁신부문 투자 △사회 불평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파울루의 역할을 강조하며, 2020년 빠른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2021~22년 고도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2세션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 기회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프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권기수 교수가 맡았다. 우선 엘데르 곤잘레스(Helder Gonzales) 브라질 인프라부 국장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브라질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의 다양한 인프라 부문에서 브라질 정부가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김봉훈 맥스틴 글로벌(MAXtin) 대표는 브라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한·브라질 협력기회 창출을 위해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브라질 내 보건의료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의 보건의료 수출입 유망품목을 제시했다.

아리안니 아브레우(Ariane J. L. Abreu)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연구원은 브라질이 국가 R&D 투자액의 35%를 보건의료산업에 투자할 만큼 해당산업의 성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연구원은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의 연구사업과 연구·개발·혁신(R&D&I)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국제공조에 적극 앞장서는 브라질의 역할을 강조했다.

붙임.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프로그램
별첨.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리플렛

/끝/

붙임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프로그램

프로그램

08:30~09:00

등록

09:00~09:30

개회식

개회사 : 최신원 회장(한국·브라질소사이터)
 환영사 : 조충제 소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환영사 : 황경태 국장(외교부 중남미국)
 축사 : 루이스 로페스 대사(주한브라질대사관)
 축사 : 김찬우 대사(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

09:30~09:40

기조연설 : 따르시지우 프레이타스 장관(브라질 인프라부)

09:40~10:30

제1부 포스트 코로나시대 브라질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사회: 윤여준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1: 코로나19의 브라질 경제에 대한 영향과 전망

발표자: 홍성우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코로나19 이후 브라질 경제의 리스크와 전망

발표자: 윌송 멜루 청장(상파울루투자청)

10:30~10:40

휴식시간

10:40~12:40

제2부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 기회와 활용방안

1. 인프라 분야 협력

사회: 권기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 1: 브라질 인프라 분야 기회와 진출방안

발표자: 엘데르 곤잘레스 국장(브라질 인프라부)

발표 2: 브라질 인프라 분야 진출 제약요인과 개선 방향

발표자: 이송훈 실장(해외건설협회)

2. 보건의료 분야 협력

사회: 조희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1: 브라질 보건의료 분야 협력기회와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방안

발표자: 김봉훈 대표(맥스틴 글로벌)

발표 2: 브라질 보건 분야 연구, 개발 및 혁신

발표자: 아리아니 아브레우 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

[사진1]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단체사진



(왼쪽부터)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루이스 로베스(Luís Henrique Sobreira Lopes) 주한 브라질 대사,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

[사진2]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개회사 대독



[사진3]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환영사



[사진4]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 환영사



[사진5] 루이스 로페스(Luís Henrique Sobreira Lopes) 주한 브라질 대사 축하



[사진6]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전체사진



10월 21일(수) 서울 위커힐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외교부가 공동주최한 ‘제9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